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I

(요 1:1-5)

이종윤 원로목사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 태초복음은 그 시작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Logos)로 묘사하며, 본문 요 1:1-5은 우주적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1.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세 가지 교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은 그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모든 것 이전에 계셨다는 말이요 이미 계셨다는 뜻입니다.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요, 초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시간은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시간이란 영원한 태초를 의미하며,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셔서 전 우주의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이 되고, 역사의 초점이 되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계시니라'는 태초에 벌써 계셨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계셨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의 일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1:3),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고 빛과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학 교수 벤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한 학년, 세 학기 동안 반드시 변증학을 수강해야 됩니다. 벤틸 교수는 45년 동안 변증학만 가르치셨는데 매 시간 백묵 하나 가지고 들어오셔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칠판에 큰 원 두 개를 그려 놓고 1년 내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창조주 하나님, 밑에 있는 원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피조물은 백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신학의 문제는 다 풀려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요 1:1)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교리적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位]의 구별을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개체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신실함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알려졌습니다.(요 14:9)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하나님이 말씀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만물과 구별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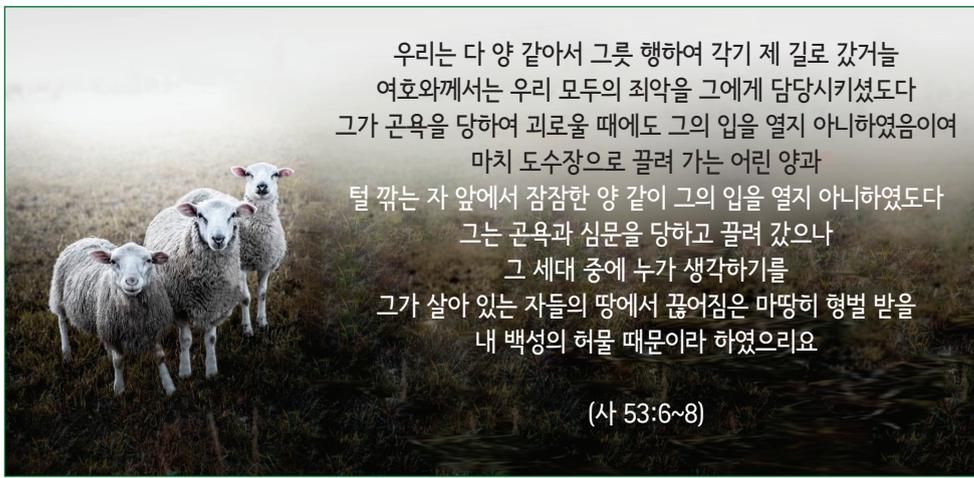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1:3), 이 말씀은 말씀과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성자와 만물과의 구별된 인격이 나타납니다. 성자와 만물이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원래 계신 자'입니다. 영어로 'being'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어로 becom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은 되어가는 자입니다. 말씀은 원래 계신 자요 만물은 되어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문체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용법으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지은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부정적 용법으로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 53:6~8)

2019 순결서약식

4월 21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신청 : 4월 7일(주)까지 / 교육 부서별로

2019년 순결서약식이 4월 21일 부활절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반

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4월 7일(주)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김혜언 집사(010-3923-9913,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 지난 주 우리교회는



① 3월 23일 토요일에 있었던 보병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② ④ 3월 23일 토요일에 있었던 한국장로교신학회 제 33회 학술발표회 「한국장로교회와 교회직분제도」
 ③ 발제자 이승구 교수

사진 : 최형열 장로 김애리 집사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미현2 감우균·김연화1 장호림 최죽희 청년부 하혜심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케냐 아마니콰이어 한국 찬양사역

4월 3일(수) 도착
 4월 28일(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서울교회가 케냐로 파송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아마니콰이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찬양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아마니콰이어는 4월 3일(수)~5월 2일(목)까지 한국에 체류 할 예정이며 4월 28일(주) 서울교회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을 하고 이날 1일 홈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제33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학술발표회

- 목사, 장로 등의 직분은 오직 섬김의 자리일 뿐 -

지난 3월 23일, 한국장로교신학회 제33회 학술발표회가 과천소망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와 교회직분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학술회는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가 주제 발표를, 김은수 교수(안양대)와 김요섭 교수(총신대)가 논문을 발표했으며 백충현 교수, 박성환 교수, 박태수 교수, 김지훈 박사가 각각 논평을 하였다.

먼저 이승구 교수는 ‘교회의 임직자 선출과 사역 분담의 모범적 사례들’로 주제 발표를 하며 요즘 많은 교회에서 회자되는 ‘항존직’이라는 말에 대해, “이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평상직원(ordinary officer)을 번역한 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항존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직분이 존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항존직은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영원히 맡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한국교회는 이 말에 의거한 직분의 권력화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직분 문제로 분쟁이 많은 것은 직분을 섬김이 아닌 권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승구 교수는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성경적 직임의 회복**”이라고 재차 밝혔다. ‘위계가 아닌 그리스도 앞에서의 겸손’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첫째 덕목인 셈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지교회의 치리 기관 안에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 그는 모든 지역 교회가 같이 묵회하고, 치리하는 역할은 현 장로교회에서 노회를 통해 이뤄진다면 주님의 뜻대로 해야 행복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 짐을 역설했다.

끝으로 이승구 교수는 “**항존직 속에 평생직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재차 전하며, “**항존직의 말뜻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직분이 영원히 있다는 뜻이지,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영원히 맡는 건 아니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정통장로교회의 예를 빌려, 임기제를 제안했다.**

발제가 있는 후 김요섭 교수는 “스코틀랜드 제1차리서(1560)의 목사직분 규정연구”의 논문을 발표하며, 제1차리서는 성경적으로 정당하며 시대를 뛰어넘어 일관되고 바람직한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개혁신학의 신학적 전통과 장로교회의 제도적 유산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용하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제1차리서에 의하면 목사는 회중들의 동의와 임명될 교회의 동의와 후보자 심사를 위해 임명된 학식을 갖춘 목사들의 허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제1차리서는 종교개혁의 취지에 따라 목사 후보자뿐 아니라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치리서는 선출된 목사도 교회의 권징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잘못을 범했을 경우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엄격한 권징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을 교회개혁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권징의 철저한 시행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제1차리서는 목사들의 사역과 생활을 살피고 점검할 책임과 권한을 장로들에게 두었다. 당연히 장로들은 그들의 목사들의 생활 방식과 성실함과 학식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만일 목사에게 경고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장로들은 목사에게 경고해야만 한다. 목사를 견책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장로들은 반드시 목사를 견책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면직되는 것이 옳다면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의 동의를 얻어 면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면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목사에 대한 계속적 검증은 종교개혁의 대의와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성경적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직분제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 김은수 교수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에 나타난 직분제도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근거하여 개혁교회의 교회법들에서 구현된 직분제도와 정치질서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에 있어서 제일의 대원칙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원리’라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교회의 각 직분자들의 임기를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장로교회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의 항존직의 개념을 종신직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네바 교회법규에서는 매 1년의 임기마다,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에서는 매 2년의 임기마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하거나 혹은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장로교회의 대부분은 위임목사의 경우 6년마다 1년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의 경우 직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분 자체는 면직의 사유가 없는 한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되 위임된 각 해당교회에서의 사역은 6년 임기제로 하여 안식년 후 복귀할 때는 사역의 결과에 대하여 교회 회중들의 재신임을 다시 묻고 그 사역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목사가 교회의 직무에 보다 집중하고 헌신하여 더욱 충실하게 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부디 한국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사순절의 기도

기쁨의 샘물이 되게 하소서

이은희 권사(살롬권사회 회장)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내며
두손 모두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의 잔이
텅없이 부족함을 아시고
이끌어 불러주신 주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저 떨며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할 뿐이옵니다.

갖은 모욕과 침벨음과 조롱속에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 떠는
믿음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교묘하게 솟아 오르는 교만함과
편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잠재워 주옵소서.

금홍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아직도 사랑한다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고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또다시 다독여 주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배워가게 하시고
작은이들의 벗이 될 수 있게하옵소서.
위로와 격려, 소망과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멈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의 샘물이 되게 하사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군대는 전도의 황금어장



최임수 집사
(비전2020본부 차장)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새벽을 깨운다.

지난 3월 23일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서울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보병제12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에 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비전2020을 후원해 주셔서 올해 첫 번째 진중세례식이였다. 장석남 목사님의 기도로 강원도 원통에 있는 12사단 신교대로 출발하였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부목사님 두분, 장로님 네분, 성례부, 도고기도팀, 필그림양상블팀, 비전2020운동본부 외 총 40명이 함께하였다. 이번 12사단 신교대 진중세례식에는 처음 참가하신 분 위주로 편성하였다. 더 많은 성도님이 신청했지만 차량관계로 다음으로 미뤘다.

우리는 원통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신교대 군목과 함류하여 안보견학장인 을지전망대로 향했다. 을지전망대를 오르니 높은 산과 울창한 숲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한 공기와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전망대로 가는 길은 마음의 힐링이 되어 피곤한 줄 모르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을지전망대에 도착하니 우리를 반기듯 하얀 눈이 내렸다. 최전방 고지에서 하얀 눈을 맞아보긴 모두들 처음이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추억인가! 하얀눈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북측은 보이지 않았지만 을지전망대 관측장교의 현황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안보의식을 느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교회에 도착하고 예배 시작 전 준비찬양으로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힘차게 부르는 병사들을 볼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날 예배참석인원은 세례인원 54명(입교 1명포함), 기타 장병과 서울교회 인원을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하여 신교대 교회가 가득했다.

특히 군단군중참모와 사단군중참모도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어 조정식 장로님 기도와 류충기 집사님의 특송, 조원영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란 설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어서 세례예식과 우리교회 필그림양상블팀의 관현악 연주와 서명철 목사님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세례받는 장병들에게 우리 서울교회에서 트라이탄 보틀과 세면백, 간식, 팔찌 등을 선물하였다. 또한 참석한 전 장병에게는 햄버거와 콜라를 간식으로 제공하여 장병 사기를 크게 높였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에게 전후방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기도할 때 비전2020운동은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믿는다.

"군대는 전도하는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 비전2020운동은 더욱 더 발전하리라 믿는다.

주님! 우리 서울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군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일	월	삼상 13-15		시 66-73	
4월2일	화	삼상 16-17		시 74-80	
4월3일	수	삼상 18-20		시 81-91	
4월4일	목	삼상 21-24		시 92-102	
4월5일	금	삼상 25-28		시 103-107	
4월6일	토	삼상 29-31		시 108-118	
4월7일	주일	삼하 1-3		시 11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 5일(금) 김범수 집사(김민정 집사 4교구) 용인시(정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지구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4월 6일(토) 사랑의쌀 운동과 몽골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학교 이사회 개최에배 설교를 각각한다.

■ 4교구 김범수 집사(김민정 집사 부군, 최원자 권사 사위) 용인시(정,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지구당 사무실 개소식을 4월 5일(금) 오후 3시에 갖는다.



■ 전시회 : 15교구 전광영 집사(유지엄 그라운드) 『특별기획전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필름과 사진전』 4월 2일~7일 10일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당진시립합창단 제27회 정기연주회 『파랏파랏 사월속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노래를 찾아서』 4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당진시립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연주회 : 15교구 신모란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 『세계 4대 뮤지컬 모음곡 오페라 아리아』 4월 5일(금)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 금주의 식사: 최미경 권사 강명모 성도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쇠고기 카레라이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시순절 넷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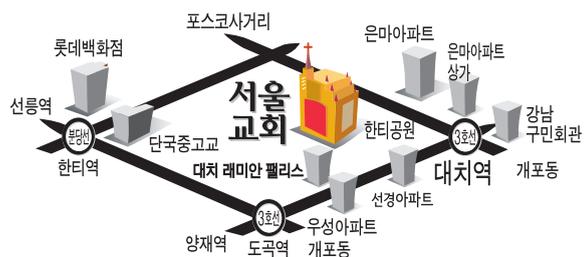
2.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불법 세력이 속히 제거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3.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